

깨끗한 전북교육 만들기 앞장

도교육청, 맑은전북교육 실무대책반 회의 개최... 청렴정책 추진계획 논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청렴하고 깨끗한 전북교육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8층 대회의실에서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맑은전북교육 실무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2019년도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 평가 결과를 분석·공유하고, 2020년도 청렴도 개선 및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수립 방향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먼저 오전에는 감사관실 담당자를 포함해 청렴도 측정 업무 장학관과 사무관, 2020년도 부패방지 청렴정책 추진과제별 부서담당 팀장·담당자 등이 참여했다.

시설공사, 현장학습, 운동부, 학교급식, 방과후학교, 물품·용역계약, 인사, 예산, 교육정책평가, 학부모교육 운영, 학업성적 및 학생평가, 민원사무 업무 등이 해당한다.

오후에는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도교육청은 20일 8층 대회의실에서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맑은전북교육 실무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

청렴업무 담당 과장·팀장·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2019년도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2020년과 2021년 권익위 청렴도 평가지역을 안내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각 부서에서 제출된 청렴정책은 향후 교육감, 국·과장, 지역교육장 등이 참석하는 맑은전북교육추진단 회의 심의안건으로 반영된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제2회 학생저자 출간기념회' 개최

오늘 도교육청 2층서 학생 책 쓰기 동아리 제작 창작 영화 상영·낭독극 축하공연 등 진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도내 학생저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출간 기념회를 연다고 밝혔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2층 강당에서 학생 책쓰기 동아리 지도교사와 학생대표 등 200명을 대상으로 글쓰기를 통해 '책 읽는 기쁨, 책 쓰는 보람'을 나누는 제2회 학생저자 출간기념회를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뜻있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모여 사제동행 독서, 연구활동 등을 거쳐 책을 낼 수 있도록 학생 책쓰기 동아리를 꾸준히 지원해 왔다.

그 규모도 해마다 확대돼 지난 2019년에는 94팀의 동아리를 선정해 활동했다.

활동 분야도 다양하다. 창작 소설, 과학 프로젝트, 지역 조사 연구, 개인 문집, 시집, 그림책 등 다양한 분야에

서 각자 주제로 정한 내용을 1년 동안 읽고 토론해 책으로 엮어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책을 통해 성장한 시간을 지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식전행사로 '학생 책 쓰기 동아리 제작 창작 영화'를 상영하고, 행사장 한 칸을 전시장으로 꾸며 2019년 활동 결과물을 전시하며 본행사에서는 '우수 동아리 사례 나눔'에 이어 낭원서진이고 학생들의 '낭독극'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의 지원으로 전북의 많은 학교에서 사제동행 책쓰기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사제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 독서·글쓰기 문화는 물론 더 많은 학생들이 깊이 있게 읽고 말하며 글쓰는 학생저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학생저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출간기념회를 연다.

'책 읽어주세요, 노란 앞치마' 자원봉사자 모집

정읍학생복지회관, 28일까지 만14세 이상 청소년·성인 대상

정읍학생복지회관(관장 한재규)은 관내 어린이들의 독서 흥미 유발 및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봉사 참여로 건전한 인성 함양을 위해 '책 읽어주세요, 노란 앞치마' 자원봉사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책 읽어주세요, 노란 앞치마'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어린이의 독서 흥미 유발과 청소년 자원봉사 참여로 어린이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2012년 '국민독서의 해' 캠페

인으로 시작해서 2015년부터 전국 공공도서관으로 확대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정읍학생복지회관에서는 2018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3월 14일부터 6월 13일, 9월 19일부터 12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할 계획이다.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싶은 만 14세 이상 청소년부터 성인은 정읍학생복지회관 도서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정읍학생복지회관은 '책누리 독서회' 회원을 18일부터 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모집한다. '책누리 독서회'는 1988년 6월에 조직되어 운영돼 온 '어머니 독서회'의 독서회 명칭을 새롭게 변경했으며, 책을 사랑하는 정읍시민(성인)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올해는 3월부터 12월까지(7~8월 제외)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운영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전북대, 노사관계 전문가 교육과정 제7기 수강생 모집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2020년 노사관계 전문가 교육과정' 제7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3월 6일까지다. 교육과정생들은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노동 및 노사관계 일반, 인적자원 관리 실무, 지역의 현안 문제 등에 대해 강의와 사례발표·토론, 국내·외 연수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

전북대는 지난 2014년 고용노동부의 공모를 통해 노사관계전문가 육성사업을 수행할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이

래 지난 6년간의 교육 평가에서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으며, 제1~6기에 걸쳐서 전북지역의 선진적 노사관계문화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노사관계전문가 180여명을 배출했다.

교수진은 국내·외 노동분야 연구자와 전·현직 장차관급 인사, 전국규모의 노사단체 고위임원 등 각계의 최고 권위의 교수진으로 운영된다. 교육일정은 전반기 15주, 하반기 16주 총 31주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된다. 노동조합, 인사노무 관리자 등 노사관계 관련 분야 종사자는 누구

나 지원할 수 있다.

입학지원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대학교 노사관계전문가육성사업단(주임교수 안성은 010-3689-7230, 063-270-22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채준호 교수(전북대 경영학과)는 "노와 사 그리고 관계기관 공무원이 함께하는 이번 과정을 통해 수강생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지역 노사관계가 한 단계 더 성숙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PM 선정

전북권역 총괄기획자... 지자체 여행상품 홍보·개발 등 집중키로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에 전북권역 총괄기획자(PM)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은 전국 10개 권역을 3~4개 지자체로 묶어 내국인과 외국인을 위한 분산형·체류형·선진 관광지 육성과 지역관광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연계와 협력을 역사, 예술, 문화, 인문 등 다양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특색있는 관광명소들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240여원을 지자체에 지원했고, 지자체별

대표 및 보조 관광지 집중개선 및 육성, 코스, 상품 개발했다.

전주대학교는 이 사업에 선정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25여원을 지자체 보조금을 통해, 지자체 여행상품 홍보, 새로운 여행상품 개발 및 상품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전주대학교는 2017년부터 3년간 시간여행권역 권역연계 사업인 '광역시티투어버스', '광역이야기꾼 양성교육', '찾아가는 관광안내소', '이동하는 관광안내소', '국내 관광박람회', '시간여행 관광문화발전협의회 구성', '시간여행101 캠퍼'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며 지역의 차별화와 전북 관광산업

에 기여했다.

전주대 류인평 교수(관광경영학과)는 "국내 관광객을 위한 지자체 개별 자원에서 선형 관광 자원으로 지역의 인문자원을 융합시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다양한 권역만의 여행상품 개발을 계획했고,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까지도 만족도를 높여 관광객의 장기체류를 유도해 지역 관광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는 '시간여행101'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류 교수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을 전라북도의 특성에 맞게 구성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3월 1일자 유·초·중등 신규교사 임명장 수여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일 오후 2시 전북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2020년 3월 1일자 유·초·중등 신규교사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신규교사는 총 472명으로 유치원 88명, 초등 168명, 중등 216명이다.

신규교사들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3월 1일부터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배치되어 신규교사 생활을 시작한다.

김승환 교육감은 참석자 한명 한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신규교사들의 첫 출발을 축하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동요샘양상블, 어린이 중창단의 멋진 노래와 중등교사

들로 이뤄진 중등음악연구회 실내악팀의 감성적 공연이 더해져 한층 즐겁고 멋스러운 자리로 꾸며졌다.

김승환 교육감은 "임명장을 받은 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뒤에서 응원하며 격려해준 부모님과 가족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신규 교사들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우리 아이들의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